

관람자 체험을 고려한 메모리얼의 공간 표현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Representation of Memorials Considering Participants' Experience

Author 문은미 Moon, Eun-Mi / 정희원, 덕성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amples of memorials in which participants can communicate and interact. Memorials as an urban public space provide various information and experiences to the visi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participants' experie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morial space. The 9 examples of the memorials are selected and analyzed by the experience type of participants. This study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representation of memorials as follow; first, the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s of participants are main considerations in designing memorials. This study defines three types of participants' experience in memorials as educational, emotional and daily urban experiences. Second, the memorial space providing educational experience has narrative characteristics which are explanatory, representational, hierarchical and figurative. Memorials represent historical events and individuals in figurative ways. Participants in memorials learn the event, mourn for the dead and cure the grief through walking the guided route. Third, the memorial space providing emotional experience is indeterminate and open-ended characteristics which are contemplative, symbolic, and abstractive. While participants try to find the way to walk through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abstract forms by themselves, they interface the event and the victims in private and individual ways. Fourth, the memorial space providing daily urban experience is the familiar urban facilities embedded remembrance such as memorial square, bridge and fountain. Symbolism of memorials and effectiveness of urban facilities are engaged into the memorial design. They have functional, participatory, interactive and recreational characteristics. People experience the memorials involuntarily and casually during their daily lives. The memorials with urban facilities can be related to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city as well as the past of the city.

Keywords 메모리얼, 관람자 체험, 공간표현, 공공공간
Memorial, Participant's Experience, Spatial Representation, Public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메모리얼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공식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공동체의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도시의 이미지와 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메모리얼이 오벨리스크, 아치와 같은 압도적인 크기와 형태를 가진 시각적 상징물로서 그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면 시민혁명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의 영웅과 승전기념보다는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커졌다. 특히 핵폭탄이나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살상 사건들은 전형적인 메모리얼 형태언어로는 의미전달의 한계를 드러냈고 추상성을 강조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1982년 마야 린(Maya Lin)의 베트남 메모리얼은 이전의 메모리얼 디자인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작품으로 전통적인 전쟁기념비의 영웅들 대신에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 사색, 그리고 정치와는 무관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다. 전쟁의 상처를 표현하는 땅속으로 파고 들며 낮게 깔리는 수평적 형태는 장소 특정적 예술(site-specific art) 작품처럼 부지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또한 방문객을 초대하고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방법도 그 이전의 메모리얼이 보여준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관계설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베트남 메모리얼 이래로 관람자들은 물질적, 감정적으로 메모리얼과 상호작용하면서 카

* 본 연구는 2011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타르시스에 이르는 경험을 기대하게 되었다. 메모리얼은 관람자들의 개입과 참여를 통해서 구성되고 재창조되는 지속적인 기억의 과정¹⁾이며, 관람자들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물리적, 정서적으로 개입하여 메모리얼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메모리얼은 관람자들에게 기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관람자들이 스스로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체험을 제공한다. 관람자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일련의 체험과정을 통해 메모리얼의 의미에 접근하고 감성을 공유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메모리얼은 그 자체로의 완결된 미적, 상징적 가치를 중요시했지만 현대도시의 메모리얼은 공공 공간으로서 체험과 소통 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관람자들의 체험은 메모리얼의 공간구조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험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공간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관람자와 긴밀한 물리적, 감성적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도시의 메모리얼에서 관람자의 체험유형을 파악하고, 관람자의 체험과 관련된 메모리얼의 공간 표현 특성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메모리얼 공간을 관람자 체험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메모리얼 디자인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메모리얼은 유물과 유품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건물 형태의 기념관부터 광장, 공원, 묘지 등의 도시 외부공간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규모, 성격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공공공간으로서 광장, 공원과 같은 외부공간에 위치하며 공공에 개방되어 있는 메모리얼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메모리얼에서 관람자 체험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문헌조사, 메모리얼 웹사이트, 사진공유 웹사이트의 자료조사를 참고하여 교육체험, 감성체험, 일상적 도시체험의 세 가지 포괄적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문헌조사를 통해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메모리얼의 의미와 종류를 조사하였고, 메모리얼의 관람자 체험유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관람자 체험의 관점에서 메모리얼의 공간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베트남 메모리얼 이후 최근 약 20년간 완성된 메모리얼 중에서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우수한 디자인으로 평가받았고, 다양한 체험유형을 반영한 9개의 사례²⁾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1> 사례조사 대상 메모리얼 개요

메모리얼 사례	위치	완성연도	기념대상	건축가/예술가
한국전쟁참전용사 메모리얼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	1995	한국전쟁 참전용사	Cooper-Lecky Partnership, Frank C. Gaylord, Louis Nelson
오클라호마 메모리얼	미국 오클라호마	2000	폭탄테러 희생자	Butzer Design Partnership
펜타곤 메모리얼	미국 버지니아	2008	9·11테러 희생자	Julie Beckman & Keith Kaseman
런던 지하철테러 메모리얼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2009	폭탄테러 희생자	Carmody Groarke, Anthony Gormley
베를린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독일 베를린	2005	홀로코스트 희생자	Peter Eisenman
베를린 나치분서메모리얼	독일 베를린	1996	나치분서사건	Micha Ullman
폴란드 크라코프 게토광장	폴란드 크라코프	2005	크라코프 유태인희생자	Piotr Lewicki & Kazimierz Latak
크로아티아 리에카 기념교	크로아티아 리에카	2001	크로아티아내전 전사군인들	3LHD
다이애나왕세자비 추모분수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2004	다이애나 왕세자비	Neil Porter, Kathryn Gustafson

2. 현대도시에서 메모리얼의 의미

2.1. 메모리얼의 정의

메모리얼은 예술적 표현수단을 통해 공동체의 이상이나 초월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사건이나 인물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한 장소이다. 메모리얼은 물질적 형태와 서술적 내용으로 구현되는 공공의 정서에 대한 기록보관소로서³⁾ 감사와 슬픔으로부터 두려움, 수치, 분노에 이르는 다양한 정서와 관련된다. 디지털 연결망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정보검색과 의사소통에 능숙한 현대인들은 사회문화적 쟁점에 대한 즉각적인 의견제진과 정서공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현대인에게 메모리얼은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메모리얼의 형태는 기단 위에 세운 동상, 조각과 같은 예술작품이나 오벨리스크, 개선문 등의 랜드마크, 기념비(monument), 기념 대상과 관련된 자료나 유품 따위를 진열하는 건물의 형태를 갖춘 기념관, 기념 공원, 광장, 무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메모리얼이지만 최근에는 일시적, 임시적 성격의 메모리얼 또한 일반화되고 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가상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인터넷에 추모 사이트를 만들어 조의를 표현하거나 또는 일종의 이벤트나 해프닝 같은 일회성 메모리얼을 기획하는 것이다.

2.2. 도시공공공간으로서 메모리얼

3) 에리카 도스(Erika Doss)는 뉴욕 9·11테러 발생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에서만 수백 개의 메모리얼이 생겨났음을 언급하면서 미국사회가 메모리얼에 열광하는 '메모리얼 매니아(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사회임을 주장한다.

1) Rodrigo, Russell, Spatializing Memory: Bodily Performance and Minimalist Aesthetics in Memorial Space, The Australian Council of University Art and Design Schools, 2009

2) 국제적인 지명도가 있는 건축가의 작품, 권위 있는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 건축 및 디자인 관련 잡지에 소개된 작품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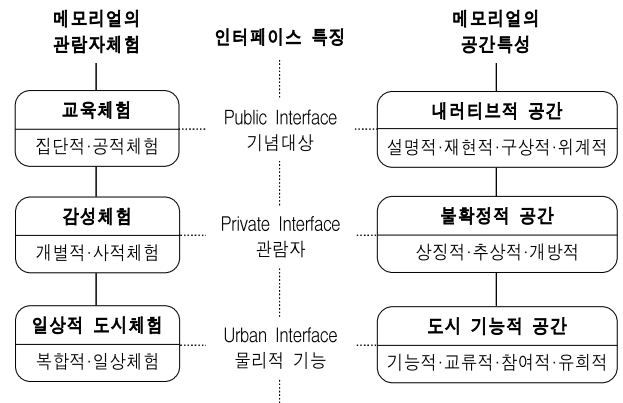
현대도시의 메모리얼은 도시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과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주변 환경과 연결되도록 계획된다. 공공공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집단의 성원으로 사회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⁴⁾이라 할 때 메모리얼은 대표적인 도시 공공공간이다. 도시 공공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적 삶을 반영한다. 현대도시의 공공공간에서 사람들은 익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개인의 영역과 사적체험이 존중받기를 원한다. 관람자들은 공적 체험뿐 아니라 개별적인 사적 체험을 통해 메모리얼의 기억을 내면화한다.

메모리얼은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한 도시에 집적된 역사와 기억을 공유하는 장소이다. 지역적 특성을 표현한 메모리얼은 지역 구성원들 간의 집단적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메모리얼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이지만 과거에 고착된 메모리얼은 도시의 현재나 미래에는 거의 공헌하는 바가 없다.⁵⁾ 메모리얼이 그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얼로서의 상징성과 공공공간으로서의 편의와 안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오래된 도시의 모뉴먼트들은 그 도시의 상징으로 남아있을 뿐 애초에 메모리얼을 만든 의미는 역사적 기록으로 퇴색하기 마련이다. 현대 도시의 메모리얼은 도시맥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지역주민의 삶과 밀착되면서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에게는 스토리를 전달하여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3. 메모리얼의 관람자 체험 유형

메모리얼이 관람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체험, 감성체험, 일상적 도시체험의 유형에 대응하는 메모리얼의 공간을 내러티브적 공간, 불확정적 공간, 도시 기능적 공간으로 정의하고, 공간특성과 관람자체험의 관계를 아래 <그림 1>로 도식화하였다. 도시공공공간에 설치된 메모리얼은 기념대상을 매개로 사람들 즉 관람자들과 메모리얼 공간의 물리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험이 이루어진다. 메모리얼 공간에서 관람자 체험이 기념대상, 관람자의 내면, 또는 도시의 물리적 기능의 어느 측면이 강조되었는가에 따라 교육체험, 감성체험, 도시체험으로 분류하였다. 메모리얼 공간이 기념대상의 정보와 의미전달을 강조했을 때 관람자 체험은 교육적인 특성이 강해지며, 관람자 신체의 움직임과 심리적 변화를 강조했을 때는

관람자 내면의 감성적 특성이 강조된다. 메모리얼 공간이 도시 공공장소로서 물리적 기능을 강조한다면 관람자 체험은 도시적 특성이 강조된다. 교육체험은 기념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러티브적 공간, 감성체험은 관람자 개인의 신체와 감각, 심리상태와 관계를 맺는 불확정적 공간, 도시체험은 도시의 물리적 기능과 시설을 이용하고 참여하는 도시기능적 공간의 특성이 강조된다.



<그림 1> 메모리얼의 관람자 체험 유형과 공간 특성의 관계

3.1. 교육 체험

메모리얼은 국가적, 지역적, 문화적 기억을 만들고 정체성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교육수단이다. 메모리얼의 일차적 목적은 관람자들에게 기념대상인 사건과 인물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기념 대상인 사건과 인물의 연대기적 전개, 현 시대에 남긴 교훈과 치유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위계적으로 구성하여 교육적 체험을 제공한다. 역사적 흔적을 가진 사건발생의 장소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에 설치됨으로써 메모리얼 사이트 자체가 중요한 체험의 대상이 된다. 닫힌 공간인 기념관은 교육체험의 설계가 용이하며 관람자들은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는 사건의 내러티브(narrative)를 따라 움직이는 선형적 교육체험을 하게 된다. 외부공간에 설치된 메모리얼은 안내판이나 표식과 같은 직접적인 설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징적 장치들을 통해 관람자의 자발적인 탐색과 경험을 유도해야 한다.

3.2. 감성 체험

감성을 통한 소통의 가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체험이 이성적이고 보편적 기준에 의한 공적 체험에 가깝다면 감성체험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적체험이다. 감성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감각이나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도의 심리적 체험⁶⁾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단일한 또는 복합적인 감각작용을 통해 인간의 내

4) 김미영·문정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공공간 특성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89호, 2011.12, p.293
 5) Kristal, Marc, Memory Work, Edited by Raymond W. Gastil and Zoe Ryan, Open New Designs for Public Space, Van Allen Institute, 2004, p.92

6) 네이버지식백과

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작용⁷⁾이다. 메모리얼은 관람자와 공간 구성요소 간의 의도된 관계 설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감성체험공간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기념공간에서 관람자는 움직임에 따라 전개되는 공간체계의 다양한 변화를 지각하고 경험한다. 관람자는 걷고, 멈추고, 바라보는 등의 감각을 매개로한 체험을 통해 기념대상에 감정이입하고 그들의 부재를 실감하게 되며, 애도와 슬픔, 죄의식, 감사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메모리얼은 일종의 낯설고 특별한 비일상적 공간이며, 관람자는 이러한 낯선 공간의 새로운 자극으로부터 감각을 활성화시켜 공간에 몰입함으로써 풍부한 감성체험을 하게 된다. 관람자는 자신과 공간 간의 다양한 인식과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체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념대상과 소통하게 된다.

3.3. 일상적 도시 체형

메모리얼은 전통적으로 랜드마크적 성격이 강하며 형태적, 내용적 측면에서 비일상적 공간으로 계획되어 왔다. 그러나 메모리얼의 수명이 한 두세대에 불과하다⁸⁾는 논의를 상기한다면 메모리얼은 기념물로서의 특별함뿐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친밀하게 연결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메모리얼은 지역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이야기를 담은 친근하고 일상적 장소가 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된다면 메모리얼은 현실과 격리된 장소가 아닌 사건과 일상을 중첩시키는 시간의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⁹⁾ 과거에만 머무는 기억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열어지는 반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 간의 상호작용은 기억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사람들이 매일 왕래하는 광장이나 거리, 공원 등의 도시 공공공간과 통합된 메모리얼은 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치유적 특성을 표현하는데 용이하다. 도시기반시설로 통합된 메모리얼에서 기념대상은 무의식적으로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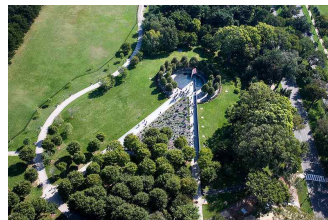
4. 메모리얼의 공간 표현 사례 분석

4.1. 내러티브적 공간 표현

(1) 한국전쟁 참전용사 메모리얼(Korean War Veterans Memorial, 1995)

한국전쟁 참전용사 메모리얼은 링컨메모리얼, 2차 세계대전 메모리얼과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이 모여 있

는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The National Mall)에 위치한다. 한국전쟁 메모리얼은 한국의 험난한 지형을 상징하는 삼각형 부지 위에 19명 한 소대 군인들의 사실적인 조각, 관람자들을 이끄는 검은색 화강암 벽에 새겨진 전쟁의 이미지들, 그리고 성조기가 게양된 원형의 반사연못으로 구성된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베트남 메모리얼 건립 이후에 완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설적이고 사실적으로 구현되었다. 비바람 치는 거친 날씨와 낮설고 험한 지형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대치하는 군인들의 단호하지만 긴장된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되었다. 50미터 길이의 반사하는 검은 화강석 벽에 실제 전쟁기록사진에서 발췌한 2,500개 이상의 전시활동 등을 새겨 넣은 이미지 벽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당시의 상황을 방문객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의 글과 전쟁관련 기록을 메모리얼 진입부분과 연못 주변의 비석에 새겨 넣었다. 나무로 둘러싸인 지름 9m의 원형 반사 연못은 메모리얼의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전쟁에 대한 통계기록과 추모의 글을 새겨 넣은 치유적 상징 공간으로 배치되었다.



<그림 2> 한국전쟁 메모리얼 조망도



<그림 3> 군인들의 조각상

(2) 오클라호마 메모리얼(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2000)

1995년 4월 19일, 2톤 트럭을 이용한 폭탄테러로 연방정부건물이 붕괴되면서 숨진 168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메모리얼이다. 사건을 상징하는 마주보는 쌍둥이 게이트와 반사연못을 중심으로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공간, 생존자에 대한 치유의 공간, 사건 관련 정보와 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3.3에이커 부지에 도시공원의 분위기로 만들었다. 주변도로보다 낮게 위치하는 동쪽과 서쪽 도로변의 게이트에 새겨진 9시 1분과 직후인 9시 3분은 폭과 전후의 시각으로 희생자들의 생사(生死)를 갈라놓은 순간이다.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두개의 청동문과 그 사이의 97미터에 이르는 반사연못은 메모리얼의 중심공간이다. 반사연못의 동서축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빈 의자의 광장(Field of Empty Chairs)'에는 희생자들의 연령, 사망 장소에 따라 크기와 위치가 다른 168개의 의자들을 건물의 외곽선 안에 배열하였다. 의자를 지지하는 유리 기단은 조명의 역할을 하며 희생자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반사연못의 북쪽에는 '구조자의 과수

7) 권영걸, 공간디자인16강, 도서출판국제, 2001, p.283

8) Kaddy, Jesse, The 9-11/World Trade Center Memorial, Journal of Art History, Vol.2, 2007

9) 최기석·구영민, 홀로코스트 기념관 건축을 통해서 본 감각적 장소성 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 통권 제56집, 2011.10, p.119

원(Rescuers' Orchard)'과 폭발사고의 화재에도 살아남은 '생존의 나무(Survivor Tree)'로 불리는 느릅나무가 치유의 상징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림 4> 생존의 나무 - 9·01 청동문 - 빈 의자의 광장(왼쪽부터)

(3) 펜타곤 메모리얼(Pentagon Memorial, 2008)

펜타곤 메모리얼은 2001년 발생한 9·11테러로 미국에서 건립된 첫 번째 국가추모기념공간이다. 납치된 미국 항공기 AA77편이 미국 국방부건물과 충돌해서 비행기에 탑승했던 59명과 국방부건물에 있던 125명, 총 18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메모리얼이다. 미국 펜타곤 청사 옆 부지에 비행기가 국방부 건물로 돌진한 각도와 평행한 일련의 선들 위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184개의 캔틸레버 벤치가 메모리얼의 주된 요소이다. 건물로 향하는 비행기의 각도와 건물에 남아있는 폭발의 흔적은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메모리얼은 사건의 원인이나 정황을 설명하기보다는 희생자 개개인의 정보를 직접,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각각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벤치들은 사망당시 3세에서 71세에 이르는 희생자들의 출생 연도에 따라 배열되었고, 탑승객들과 청사 내의 희생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벤치의 방향과 새겨진 이름의 위치를 달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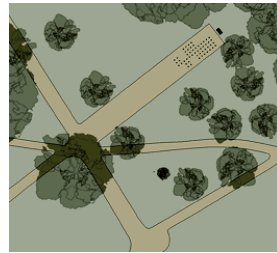
<그림 5> 펜타곤 메모리얼의 희생자 벤치

4.2. 불확정적 공간 표현

(1) 런던 지하철테러 메모리얼(7-7 Memorial, 2009)

2005년 영국 런던 중심부의 지하철과 버스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자살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메모리얼로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따라 7-7 메모리얼로 불린다. 런던 하이드파크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52명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기둥들을 규칙적인 격자 위에 배열했다. 이 기둥들은 세심하게 네 그룹으로 나뉘면서 공간의 긴장과 이완을 유도하는데 폭탄테러사건이 발생한 각기 다른 네 장소인 지하철역 세 곳과 2층 버스를 나타낸다. 3미터 높이의 15-18cm 정사각형 단면의 가늘고 거칠게 마감된 스테인리스스틸 캐스트의 수직 기둥은 희생자 수

에 따라 6개, 7개, 13개, 26개의 네 그룹으로 배열되며 그룹마다 폭발의 장소와 시간을 기둥에 새겨 넣었다. 사건당시 공격의 무작위성을 암시하기 위해 희생자 개개인의 이름은 기둥에 새기지 않았고 방문객들은 기둥 사이를 건너나 희생자 그룹의 배치에 따라 생겨나는 공간에 머무르면서 희생자들 개개인과 대면하게 된다. 공원안의 조형물처럼 보이는 메모리얼은 거대한 하이드파크 안에서 명상의 장소를 제공한다.



<그림 6> 하이드파크내 7-7메모리얼 배치도



<그림 7> 7-7메모리얼 희생자 기둥 전경

(2) 베를린 홀로코스트메모리얼(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2005)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이 설계한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4.7에이커의 부지를 높이가 다른 2,711개의 콘크리트 기둥들로 뒤덮은 일종의 대지예술작품처럼 보인다. 건축가가 “이 메모리얼은 방문객들에게 유럽에서 살해된 유대인들의 기억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 스스로가 그 기억을 찾는 과정을 제공한다.”¹⁰⁾고 했듯이 부지의 동남쪽 지하에 정보센터가 위치하지만 지상의 메모리얼은 직접적인 설명이나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폭 0.95m, 길이 2.38m의 묘비나 관을 연상시키는 기둥들은 오르내리는 경사 바닥면을 따라 높이가 0.2m에서 4.8m로 변한다. 광장의 가장자리에서는 걸터앉을 수 있을 정도로 낮고 드문드문한 기둥들이 광장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바닥은 낮아지고 기둥들은 높아져서 깊고 어두운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관람자들은 방향성도 없고 끝도 시작도 없는 기둥들 사이를 혼자 걸으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미로같은 통로를 걸으며 방문객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스스로 찾은 의미를 그 곳에 투영하여¹¹⁾ 과거의 사건과 대면하게 된다. 유대인 학살에 대한 독일인의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건축가가 의도한 진지한 추모와는 상반된 행위들이 목격되기도 하지만 방문객 스스로 역사적 의미를 찾아가는 사적인

10) Young, James E., *At Memory's Edge*, Yale University Press, 2000, pp.206-207

11) 피터 아이젠만은 “지하정보센터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하는 곳인데 반해서 지상의 광장은 잊을 수 없는 것을 마음속에서 불러 일으키기 위한 곳”으로 설명함. Peter Davey, *Field of Memory*, *Architectural Review*, Jul 2005, p.81

체험과정을 강조하는 디자인이다.



<그림 8> 기둥들의 풍경



<그림 9> 기둥들의 통로

(3) 나치 분서 메모리얼(Bibliotek Memorial to the Nazi book burnings, 1996)

독일 베를린 중심부의 18세기 광장인 바벨광장(Babelplatz)은 1933년 5월 10일 나치가 선동한 악명 높은 2만권의 분서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이스라엘 설치예술가 울만(Micha Ullman)은 현대도시의 활기와 어두운 과거를 결합시키기 위해 도시 광장의 풍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장바닥에 2m²의 작은 투명 유리판을 만들었다. 그 아래로 2만권의 책들을 꽂기에 충분한 빈 선반들로 가득찬 방이 내려다보이도록 했다. 넓고 개방된 광장에서 거의 눈에 띄이지 않지만 방문객들이 그 곳을 발견하고 몸을 구부리거나 앉아서 빈 서가를 내려다볼 때 비로소 역사적 사건과 대면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된다. 밤에는 어두운 광장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바닥의 작은 유리창을 엿볼 때 개인적 기억과 역사적 기억의 혼합을 방문자들은 경험하게 된다.¹²⁾ “책이 불탄 곳에서 결국 사람들이 탈것이다.”라는 유명한 독일시인 하이네(Heinrich Heine)의 글이 새겨진 철재 명판은 이곳이 분서장소임을 상기시키며 울만의 설치는 기억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관람자들이 메모리얼을 만나는 방식이 매우 특별하고 친절한 설명이 없어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빈 서가의 풍경은 분서사건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림 10> 바벨광장 나치분서 메모리얼의 바닥 유리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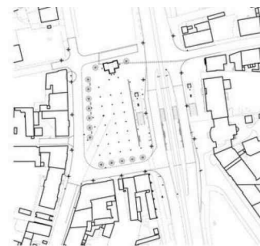
<그림 11> 나치분서 메모리얼 지하의 빈서가

4.3. 도시 기능적 공간 표현

(1) 크라코프 게토광장(Heroes of the Ghetto Square, 2005)

폴란드 크라코프(Krakow)는 역사적인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강제거주구역(ghetto)이었으며, 평범한 시골마을의 작은 광장처럼 보이는 건물과

도로에 둘러싸인 게토광장은 다른 곳으로 호송되는 유대인들의 집결지였다. 2003년 게토설치 60주년을 기념하여 시정부는 이 광장¹³⁾에 대해 유대인 공동체의 기억의 장소로 재창조하려는 프로젝트를 현상공모에 붙였다.¹⁴⁾ 광장을 재정비하기 전까지 이곳은 트램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과일과 야채좌판들이 늘어서 있는 메모리얼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장소였다. 건축가는 나치가 게토를 파괴한 후 광장에 가득 찼던 주인 없는 가재도구들의 사진에 영감을 받아 상징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광장전체로 확장되는 ‘잃어버린 물건들’의 이야기로 메모리얼을 만들었다.¹⁵⁾ 의자, 펌프가 있는 우물, 쓰레기통, 트램정거장, 자전거락, 교통신호 등을 녹슨 청동, 철, 콘크리트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표현했다. 게토 경계벽이 위치했던 바닥의 줄무늬와 광장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빈 의자들은 메모리얼의 주된 요소이다. 보통 의자보다 약간 큰 33개의 청동 의자가 이전 게토를 향해 규칙적으로 배치되었고, 37개의 보통 크기의 의자들이 광장 가장자리와 트램정거장에 배치되었다. 빈 의자들은 최근 메모리얼에서 자주 활용되는 소재로 의자에 앉았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게 한다. 광장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기능적 공간일 뿐 아니라 크라코프 유대공동체 역사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의 장소이기도하다. 상업적, 일상적 활동을 수용하는 광장의 실용적인 요소들은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일상성과 상징성 사이를 무의식적으로 체험하고 선택하게 된다.



<그림 12> 게토광장 배치도



<그림 13> 게토광장 빈 의자 전경

(2) 리예카 기념교(Memorial Bridge Rijeka, 2001)

크로아티아 북쪽 해변에 있는 리예카 기념교는 1990년대 내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모리얼의 조형성과 해협을 가로지르는 교량으로서의 도시적 기능

13) 이전에는 평화의 광장(Plac Zgody: Concord Square)으로 불렸으며 1948년 이후에는 ‘게토의 영웅들(Bohaterow Getta: Heroes of the Ghetto)’로 불리고 있다.

14) 지역주민들과 광장주변 상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기반 위에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끊임없이 연상시키는 무덤 같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 Bulca, Victorica, Aesthetics of Absence: Interaction and Public Memorials in Krakow and Berlin, <http://www.evropskemesto.cz/cms/>

15) Zagajewski, Adam, Empty Chairs, Magda(ed.), In Favour of Public Space, Actar, 2010, pp.125-127

12) Kristal, Marc, 전게서, p.93

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계획되었다. 리에카 해협을 가로지르는 이 기념교¹⁶⁾ 서쪽, 델타지역은 전방으로 출발하거나 복귀하는 군인들의 집결장소였다. 또한 이 기념교는 도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보행자다리로서 역사적 도심과 현재는 주차장이지만 곧 도시공원으로 전환될 옛 항구지역을 연결하고 있다. 해협 위에 놓이는 교량의 얇은 바닥과 모뉴먼트로서 땅에 삼입되는 바닥은 교량 바닥이 수직의 기념 벽면으로 전환되는 강력한 L자 형태로 결합되었다. 수직 벽을 나누는 가늘고 긴 틈새는 대양으로 뻗어가는 하늘을 보여주며 전쟁의 승리로 얻은 자유를 상징한다. 갈라진 수직 벽에서 시작된 아홉 개의 붉은 사각형 바닥은 크로아티아 구백년의 역사를 상징하며, 다리의 바닥과 수직 벽면에 사용된 은색의 알루미늄은 크로아티아 방패를 상징한다. 여행, 정화, 치유를 상징하는 물은 중요한 메모리얼 요소이며 시각적, 청각적 체험요소이다. 다리의 바닥면을 가능한 얇게 하여 보행자가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다리를 건너며 발자국소리와 물소리를 함께 듣도록 했다.



<그림 14> 기념교 조망도



<그림 15> 리에카 기념교의 기념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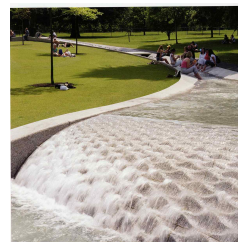
(3) 다이애나 왕세자비 추모분수(Diana Memorial Fountain, 2004)

199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위한 추모시설을 영국 왕실과 건립위원회는 분수로 결정했다. 현대 추모시설로서 분수가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린이를 사랑했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성품을 잘 반영한 성공적인 메모리얼로 평가받고 있다. 런던 하이드파크의 남서쪽에 위치하는 추모분수는 멀리서보면 하이드파크의 경관을 따라 흐르는 움직이는 물의 목걸이처럼 보인다. 미국의 조경건축가 닐 포터(Neil Porter)는 다이애나의 일생을 “손을 뻗어 다가가고, 들어오도록 허락하는(reaching out- letting in)”것으로 해석하면서 상징물을 배제하고 물의 형상과 소리를 디자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¹⁷⁾. 전통적인 기념분수가 화려한 조각상과 위로 뿜어져 솟구치는 물줄기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다이애나 왕세자비 추모분수는

옆으로 흐르는 순환하는 물줄기 주변에 방문객들이 앉고 발을 담그고 물을 만지고 물 위를 걷는 다양한 유희활동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장소이다. 컴퓨터로 형상화한 각양각색의 무늬와 크기를 가지는 545개의 대리석 조각들을 깊이와 넓이, 경사를 다르게 배치해서 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파장과 소리와 움직임은 방문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분수와 그 주변은 전통적인 엄숙한 메모리얼과는 거리가 먼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었다.



<그림 16> 추모분수 전경



<그림 17> 물의 형상과 소리를 위한 바닥

4.4. 소결

(1) 교육체험의 내러티브적 공간

메모리얼의 교육체험은 사건과 희생자에 대해 설명하고 재현하는 내러티브적 특성이 강한 집단적이고 공적인 체험이다. 특히 사건발생의 시공간적 배경을 기록하기 위해 사건발생 장소에 건립되고, 희생자에 대한 기록과 당시의 흔적을 남기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재현한다. 메모리얼의 주요 공간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진출입과 주요 동선의 흐름을 규정한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메모리얼은 미국의 수도이자 국가 메모리얼들이 집중되어 있는 내쇼널몰에 위치하며, 오클라호마 메모리얼과 펜타곤 메모리얼은 모두 사건발생의 장소에 만들어졌다. 당시의 흔적을 보존하며 희생자 개개인의 이름과 사건당시의 나이, 사망 장소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메모리얼에서 벽화와 조각상을 통한 이미지와 통계수치로 희생자를 표현했다면, 펜타곤 메모리얼과 오클라호마 메모리얼에서는 ‘빈 의자’로 희생자 개개인의 부재를 표현했다. 또한 물과 빛, 나무 등의 자연적 요소들로 치유와 희망을 상징함으로써 메모리얼의 완결된 이야기 구조를 만들고 있다.

(2) 감성체험의 불확정적 공간

감성체험을 제공하는 추상적이고 상징성이 강한 메모리얼은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열린 공간구조로 관람자들의 사유와 체험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관람자들에게 동일한 행위와 움직임을 가정하기보다는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공간구조에서 관람자 스스로 동선을 찾고 움직여서 메모리얼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체험한다. 사건을 기록하고 관람자에게 설명하는 집단적인 일방향의 체험방식과 달리 기념대상에 대한 개별적이고 사적인 대면과

16) 리에카 기념교는 3LHD가 디자인했으며 크로아티안 건축상을 수상했다. www.3LHD.com/mhb

17) Flannery, John A. and Smith, Karen M.(ed.), Urban Landscape Design, teNeues, 2008, p.30

소통의 기회를 중요시한다. 희생자의 부제를 표현하는 극도의 추상성은 관람자의 상상력에 의존하여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다.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비석들 사이의 좁은 통로를 혼자 걷도록 함으로써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대면하게 된다. 나치 분서메모리얼은 개방된 넓은 광장바닥에 그냥 지나칠 만큼 작은 유리창을 통해 관람자가 몸을 구부려 빈 서가를 내려 보면서 분서사건과 대면하게 된다. 7-7메모리얼은 넓은 공원 안에서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하늘로 뻗은 가늘고 긴 막대들의 틈새를 걸으면서 희생자들과 대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희생자와 사건을 관람자는 인간적 척도의 근접한 거리에서 긴밀하게 만나게 된다.

<표 2> 메모리얼의 관람자 체험과 공간특성 사례분석

관람자 체험	메모리얼 사례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메모리얼	오클라호마 메모리얼	펜타곤 메모리얼	런던 지하철 테러 메모리얼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베를린 나치 분서 메모리얼	폴란드 크라코프 게토 광장	크로아티아 리에카 기념교	다이애나 왕세자비 추모 분수
		공간 특성	설명적	재현적	위계적	구상적	감각적	명상적	상징적	추상적
교육 체험	내러티브적 공간	설명적	●	●	●	○	○			
		재현적	●	●	●			●		
		위계적	●	●	●	○			○	○
		구상적	●	○	○			○	○	
감성 체험	불확정적 공간	감각적	○	○	○	●	●	○	○	●
		명상적	○	●	●	●	●	○	○	○
		상징적	●	●	●	●	●	●	●	●
		추상적	○	○	○	●	●	●	●	●
도시 체험	도시 기능적 공간	기능적					○	●	●	●
		일상적	○	○	○	○	○	○	●	●
		교류적	○	○	○	○	○	○	●	●
		치유적	●	●	●	○	○	○	●	●

주) 조사대상 메모리얼 사례들의 공간특성 상관관계의 강한 정도를 '매우 강함'부터 '매우 약함'에 이르기까지 ●, ●, ○, ○의 순서로 표시하였음. 빈칸은 관계가 거의 없음을 의미함.

(3) 일상적 도시체험의 기능적 공간

일상적 도시생활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체험하는 메모리얼의 사례들은 광장, 보행자다리, 분수와 같은 기능적 도시기반시설과 결합된 형태이다. 메모리얼의 의미와 상징성이 도시 공공시설의 기능성, 효율성과 융합된 복합적 공간 특성을 가진다. 게토광장은 원래 커뮤니티 광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의자 설치물과 일상적 가로시설물들을 배치함으로써 해결했다. 리에카 기념교는 수면 위에 떠있는 수평바닥과 상징적인 수직 벽의 결합으로 두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의 기능과 전장을 향해가는 군인들의 기상을 동시에 표현했다. 다이애나 기념분수는 메모리얼의 치유적이고 유희적 특성을 가장 잘 실현한 사례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성품을 옆으로 흐르며 순환하는 물의 소리와 형상으로 표현했다. 전통적인 엄숙하고 근엄한 메모리얼

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사건이나 인물의 본질을 기능적 도시 시설과 결합함으로써 공공공간의 기능과 메모리얼의 상징적 표현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사례조사를 통한 메모리얼 공간체험과 표현 특성을 <표 2>로 도식화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메모리얼의 종류와 규모는 다양하지만 관람자와의 관계와 소통을 유도하는 공간표현은 메모리얼 디자인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메모리얼에서 관람자들은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교육체험, 개별적이고 사적인 감성체험, 복합적이고 일상적인 도시체험을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체험을 제공하는 메모리얼 공간은 내러티브적 공간으로 설명적, 재현적, 위계적, 구상적 공간특성을 가진다. 기념하는 사건의 시공간적 설명과 구체적 재현이 이뤄지며 희생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관람자는 동선에 따라 움직이며, 사건에 대한 이해, 애도, 치유의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셋째, 감성체험을 제공하는 메모리얼 공간은 결말이 열려있는 불확정적 공간으로 감각적, 명상적, 상징적, 추상적 특성이 강하다. 관람자들은 모호하고 방향성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움직이며 결말을 찾아가는 과정의 개별적이고 사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넷째, 일상적 도시체험을 제공하는 메모리얼 공간은 도시기능적 공간으로 기능적, 참여적, 교류적, 유희적 공간특성을 가진다. 광장, 보행자다리, 분수 등 도시기능과 메모리얼의 상징성을 융합하여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메모리얼을 체험하게 된다. 메모리얼은 지역주민들의 친근한 일상생활 안에 구축되며 그 지역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다.

기념대상에 대한 기억, 공감, 애도, 치유를 공유하기 위한 메모리얼은 관람자들의 존재와 움직임으로 시작되어 소통과 참여로 완성된다. 메모리얼은 시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역적 정서가 반영된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관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사례들은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메모리얼 공간으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는 도시공간에 이르는 메모리얼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메모리얼을 대하는 전통적인 경직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는 메모리얼 디자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Gastil, Raymond & Ryan, Zoe, Open: New Designs for Public Space, Van Allen Institute, 2004
2. Doss, Erika, Memorial Mania-Public Feeling in Americ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3. Dupré, Judith, America's History in Art and Memory, Random House, 2007
4. Zagajewski, Adam, Empty Chairs, Angles, Magda(ed.), In Favour of Public Space, Actar, 2010
5. Young, James E., At the Memory Edge-After-Images of the Holocaust in Contemporary Art and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Press, 2000
6. Flannery, John A. and Smith, Karen M.(ed.), Urban Landscape Design, teNeues, 2008
7.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8.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e for Remembrance, Architectural Record, 2007.2
9. Davey, Peter, Field of Memory, Architectural Review, 2005.7
10. Kaddy, Jesse, The 9-11/World Trade Center Memorial, Journal of Art History, Vol.2, 2007
11. Rodrigo, Russell, Spatializing Memory: Bodily Performance and Minimalist Aesthetics in Memorial Space, The Australian Council of University Art and Design Schools, 2009
12. 김준영·윤재은, 키네틱시즘의 '움직임' 지각을 통한 체험적 감성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80호, 2010.6
13. 우지연, 트라우마(trauma)를 치유하는 공간의 가치와 디자인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79호, 2010.4
14. 김미영·문정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공공간 특성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89호, 2011.12
15. 문은미, 현대메모리얼의 개념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2008.8
16. 최기석·구영민, 홀로코스트 기념관 건축을 통해서 본 감각적 장소성 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 통권 제56집, 2011
17. BBC News Magazine, How do you build a modern memorial?, 2008.8.6.
http://news.bbc.co.uk/2/hi/uk_news/magazine/7542580.stm
18. Bulca, Victorica, Aesthetics of Absence: Interaction and Public Memorials in Krakow and Berlin, european city seminars, 2010.3. <http://www.evropskemesto.cz/cms/>
19. <http://www.oklahomacitynationalmemorial.org/>
20. <http://www.nps.gov/kowa/index.htm>
21. <http://pentagonmemorial.org/>
22. <http://www.carmodygroarke.com/projects/publicspace/>
23. http://www.e-architect.co.uk/croatia/memorial_bridge_njeka.htm
24. http://lsaaby.wordpress.com/2011/02/09/book-burning-memorial-bebel_platz-berlin/
25. <http://www.theholocaustexplained.org/ks3/survival-and-legacy/legacy-and-memory/holocaust-memorials/>
26. http://www.chinadaily.com.cn/english/doc/2005-05/11/content_441017.htm
27. <http://www.tonyblairoffice.org/news/entry/today-britain-remembers-the-victims-of-the-appalling-terrorist-attacks/>

[논문접수 : 2012. 08. 30]

[1차 심사 : 2012. 09. 18]

[게재확정 : 2012. 10. 12]